

# 해상케이블카 내달 착공...사계절 체류형 '관광 목포' 뜬다

## 부산 송도와 추진 방식 비슷

바다위 80m서 서해·도심 한눈에  
인력 50% 이상 지역민 우선 채용  
경제효과 1000억원·고용 1000명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드디어 8월 착공된다. 해양관광도시 목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498억원을 들여 유달산~고하도 간 총 연장 3.23km(해상 0.82, 육상 2.41)에 걸쳐 조성된다. 로프웨이(사도) 방식으로 총 55개의 캐빈이 운행되며 왕복하는데 30분이 걸린다. 유달산 상·하부와 고하도 3곳의 승강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92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2곳에 조성된다.

목포시는 8월 착공을 앞두고 지난달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한 상태다.

목포시는 특히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의 운영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기능과 규모면에서 목포가 추진중인 해상케이블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목포시 인파에서는 개통 한 달을 맞은 부산 송도 해상케이블카의 '대박' 행진을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만큼 송도 해상케이블카 사례는 목포가 추진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게 목포시 설명이다. 송도 해상케이블카 사례를 통해 향후 목포해상케이블카 성패 여부를 가늠할 수 있고 미흡한 점을 분석, 개선점을 찾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목포시 설명이다.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의 경우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압남공원까지 총 1.62km 구간을 운행한다. 지난 1988년 중단된 이후 29년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달 21일 개장 첫날 5800명이 탑승한 것을 시작으로 평일(주중) 3000명, 주말엔 8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운영사 설명이다. 하루 최대 수용 가능한 탑승객은 1만 6000~1만7000명 정도로, 운영사측은 이 추세라면 '평일 3500명, 주말 1만 2000명'이 찾을 때 가능한 '연간 200만명 탑승객 유지'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바다에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 13기를 포함, 39기를 운행 중이다.

통영 한려수도케이블카의 연간 탑승객이 130만명(캐빈 48대), 여수해상케이블카 탑승객 200만명(캐빈 50대) 정도라는 점에서 캐빈 숫자만 놓고보면 '대박'을 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목포시는 55개의 캐빈을 운영하고 케이블카 운행 구간도 훨씬 길어(송도 1.62km, 목포 3.23km) 수위 구조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해상케이블카를 통해 즐길 수 있는 관광



목포 유달산과 고하도 전경

자원과 볼거리 등도 송도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목포시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바다 위 투명한 캐빈을 통해 바다 위 최대 86m 높이로 지나가는 짜릿함뿐 아니라 송도해수욕장 전경을 비롯해 해안 블레길, 압남공원,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남향대교, 용두산 공원 등 바다와 어우러진 주변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게 매력으로 꼽힌다.

송도해수욕장 앞바다에 정박한 선박 불빛, 영도·남포동 도심 불빛을 머금은 송도의 전경을 밤 하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인기 비결이다.

목포 케이블카도 수면 위에서 80m 높이에서 운행, 탁 트인 서해바다와 도심이 어우러진 주변 경관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바다에 투명한 캐빈 10대를 운행해 짜릿한 전망을 맛볼 수 있다. 또 고하도 내 힐링 랜드, 전망대뿐 아니라 목포해안대~대반동 일대 경관조명 사업을 케이블카 운행 전 마무리해 해상케이블카를 통해 환상적 경치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목포시는 이같은 점 등으로 '연간 탑승객 100만명'이라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케이블카 운영 법인 본점을 목포에 두고 운영 인력의 50% 이상을 지역민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를 대표하는 유달산,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인 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가 다음달 착공된다"면서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목포를 체류하는 관광지로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케이블카 주변 상업시설과 겹치는 판매시설 등은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대교 야경

###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 498억원 투입 유달산~고하도 총 연장 3.23km
- 로프웨이 방식 55개 캐빈 운영...왕복 30분 운행
- 924대 주차장 2곳 조성...년 탑승객 100만명 목표



국내 제1호 해수욕장인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설치된 송도 해상케이블카 전경. 목포시는 기능·규모면에서 유사점이 많은 송도 사례를 분석, 목포 해상케이블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 “목포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육성 도심 상권 부활 등 활기 넘칠 것”

### 박홍률 목포시장 일문일답

목포해상케이블카 착공을 앞둔 박홍률 목포 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운영을 계기로 목포를 해양관광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해상케이블카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남다르다. 해상케이블카 운영을 계기로 목포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나

▲사계절 지속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다. 연중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상권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심상권 부활은 물론 생기 넘치는 도시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이다.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대응 방안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가시도를 설치해 모든 화물을 공중이 완료되면 기존 관광 상품들과 활용, 유달산 지주는 노출암석을 피해 설치할 것이다. 보호종인 왕자귀나무, 지네발란 등 서식지는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처리 관로와 연결하거나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하는 등 환경 영향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사는 얼마나 걸리나

▲8월 착공된 뒤 사업기간은 약 10개



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 시기는 공사 중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소 변동적이다.

-케이블카 개통과 맞물려 주변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여론이 많다. 계획은?

▲목포의 다양한 관광자원에도, 그동안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체험형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현재 유달산권에 도시재생사업, 유달산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고 고하도에 해안 힐링랜드, 전망대, 목화단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이 완료되면 기존 관광 상품들과 활용, 목포가 대한민국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해상케이블카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나

▲연간 탑승객 100만을 감안한 경제 유발효과는 약 1000억원, 고용효과도 약 1000명 정도로 본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2017년 필리핀 주니어 체험 영어 캠프

### 모집 안내

**캠프기간** 2017년 7월 30일(일) ~ 8월 26일(토)

**모집연령**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캠프장소** 마닐라 일러방 리조트 전용 동

- 24시간 상주 현지 담임 선생님
- 맞춤형 멘토엔 수업, 생활 영어 체험, 현장 영어 공부
-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영어 캠프 선생님
- 독특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상담 문의

☎ 070.8286.8726

🌐 epoweredu

📝 블로그 : http://blog.daum.net/e.power

# 착한보청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